

밀원식물(묘목)식재사업 시행

(금년도 사업량 소진 못해-후반기 추가시행)

최규철 사무총장

본 협회는 정부의 지원사업인 밀원식물식재(헛개나무, 업나무, 쉬나무)1년차 사업을 지난 16일 전남·광주지회를 시작으로 묘목이 분양 되었다.

2월 말경 각 지회별 신청량이 한국양봉농협의 무상공급의 이유로 신청량이 줄어들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전·후반기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전반기에 남는 사업량은 후반기에 식재하여 금년 사업량은 소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양봉농가는 밀원수를 식재해야 한다는 인식들은 갖고 있었으나 본인 소유의 땅이 없다는 이유로 금년 사업량도 소진하지 못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본 협회에서는 밀원수 식재를 위해 다년간 농림부와 산림청을 상대로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밀원식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왔으며 산림조합의 산주교육에도 밀원수를 식재하도록 권장하여 왔으나 정작 앞장서서 식재해야할 우리농가들은 본인소유의 땅이 없다는 이유와 내손으로 밀원수를 식재하겠다는 의지부족으로 묘목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밀원수를 식재하지 않으면 우리양봉농가는 살아남을 수 없고 양봉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양봉인들이 식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관할 시·군과 협조하여 예산지원과 식재장소(국유림, 휴양림 등)를 협의하여 식재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이 심어 놓 밀원수 만을 의지 할 것인가? 금년부터라도 밀원수를 식재하면 앞으로 4-5년이면 꽃이 피고 기능성 벌꿀을 채밀 하여 고품질의 벌꿀을 소비자에게 공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 칠곡군 박병우 분회장은 군과 밀원식재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수시로 건의하여 전년도부터 대 단위 밀원수 식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박병우 분회장은 밀원수 식재 활성화 위해 칠곡군이 주관하여 산림과학원과 기술협약을 식을 갖는 등 칠곡군 관계기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타 분회에서 밀원수 식재만이 우리에게 살길이라 생각하고 금번 밀원수 식재 사업에 적극 동참하자

2006년도 전반기에는 한국양봉농협의 무상공급으로 신청량이 다소 부진 하였다고 하나 후반기에는 전량 소진 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